

2017년 5월 22일, 조천읍 함덕리 함덕3구경로당, 강수경 조사.

제보자1: 양정렬(여, 1933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제보자2: 김복덕(여, 1936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- 줄거리: 여름에 밭에 갔다가 뱀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걸 봤다. 그걸 보고 놀래서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다. 이쪽으로 가면 그 뱀이 나타나고, 또 저쪽으로 가도 뱀이 나타났다. 집에서 누워도 그 뱀이 눈에 자주 보였다. 그래서 제주시 동문통 보살한테 가서 사정을 말하니, 소금, 삽, 호미를 준비하여 오라고 하였다. 소금, 삽, 호미를 준비해서 찾아가니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난간에 앉았다. 보살이 나오더니 삽으로 등을 탁 두드리더니 정신이 바짝 났다. 다음 호미로 목에 대면서 너 안 나가면 죽이겠다고 하였다. 그렇게 하고 보살집에서 일주일 살면서 계속 고통을 하니 몸이 좋아졌다.

[조사자] 뱀에도 놀레었으네 곱합니까?

[제보자1] 건 몰라 우린, 뱀에는 그런 거는 몰른다.

[제보자2] 그건 저 칠성.

[조사자] 칠성.

[제보자2] 칠성에 놀렌 것도 칠성을 다스려사 뉘주.

[조사자] 그런 일은 엇수과?

[제보자1] 우린 그런 것엔 안 헨.

[조사자] 아니, 들은 거. 본 거 말고 들은 거.

[제보자2] 아, 나가 밧디 덩기당야. 그 베염 두 개가 막 그냥 부튼 걸 밧주게.

[제보자1] 아 그건 정말, 는 정말 는…….

[제보자2] 그걸 보난야 그걸 밧 놀래주게. 나가.

[제보자1] 놀래곡 말곡게

[제보자2] 놀래난야 그냥 정신이 완전히야 도라짱굴이 헨 사름굴이 경 헤전게. 게난 옴로 요 밧디만 요디 가민 그것기 나타나곡, 또 요디 가민 요디도 나타나곡.

[제보자1] 눈에 그냥.

[제보자2] 눈에, 나 눈에 막 건줘게.

[제보자1] 막 얼망거런.

[제보자2] 경 헤네야, 저 시에 동문통 보살안티 갓어. 가나네 그 보살이 허는 말이 소금
훈 관뒤허곡 저 삽허곡 호미허곡 경 가정 오렌. 경 행 가져갓어. 가정 가난야
들어오도 못허게 험디다. 그디. 보살이. 들어, 방 안터레 들어오지 말렌. 경 헤
네 이젠 난간에 영 앓았어. 앓인디야 그냥 보살이 나완게만은 그냥 삽으로 그
냥 등팔머리를 탁 두드러. 삽으로야. 두드나네 이젠양 정신이 바짝허게 나저.
경 행 또 이젠 호미로 이젠양

“너 이놈우 조식 안 나가민 너 죽이켤.”

그냥, 경 허멍 막 그냥 모가지레 데연야 경 막 답도리를 험디다게. 경 행 그
디서야 그거 헤난야 들어간에 일주일 살았어.

[조사자] 그디 보살집이?

[제보자2] 응. 경 헨 이젠 허연에게, 훈 일주일, 막 그디서 답도리허멍 허연게야 그냥 좋
아불언게.

[제보자1] 응. 그 사름 걱셴 생이라. 게난 옛 어른은 그렇게 말헤. 의심이 병이라고이.

[조사자] 의심이?

[제보자1] 응. 자기 마음. 마음이 병이다. 그 말이여이. 마음이 이것이 이거다 허문 그냥
어딘가 몰르게 이것이 죄책감이 잇게 자기 머리에 입력뒤덴 그말이주게.

[제보자2] 그냥이 그거 답도리 안 헐 때는 누민이 눈썹에 그것이 자랑자랑자랑 돌아져.

[조사자] 뱀이?

[제보자2] 응. 경 헤네 나 살아났어. 경 안 허민 그거 안 떼민 그냥 죽넨.

[조사자] 그거는 언제 얘기마씨?

[제보자2] 그거는 여름엔디. 여름엔디 칠팔월에.

[조사자] 칠팔월에. 게난 지금으로부터 언제쯤인 거 다향마씨? 몇 년 전쯤 다향과?

[제보자2] 그때가 훈 오십, 오십에 뒤실 거라. 경 헤젓일 거라. 오십.

[조사자] 오십에 마씨? 거문 얼마 안 뒤네예?

[제보자2] 응. 얼마 안 뒤어.

[제보자1] 삼십 년 후라이.

[제보자2] 삼십 년 뒤주.

[조사자] 이제 여든이우과?

[제보자2] 여든둘.

• 핵심어 : 베엄, 칠성, 보살, 답도리, 여름, 호미, 소금, 삽